"北 초기단계 이행 합의땐 광범위한 추가조치 검토"

宋외교 '한미외교 회담' 귀국 회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9·19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회담에서 (미국이) 여러가지 탄력적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은 그 방안을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는 북측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지난 달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초기단계 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의 '패키지 딜'을 수용할 경우 '패키지딜'에 담긴 내용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추가 조치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제공, 인도적 지원 등도 추가 조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케 했다. /연합뉴스

한총리 롯데호텔 행사 참석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아찔'

한명숙 총리가 행사 참석차 들른 시내 한 호텔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하마터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맞았던 것으로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 총리 일행을 태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 총리실 간부와 수행원 일부가 넘어졌다는 것.

다행히 한 총리는 가장 앞에 타고 있었고 엘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2층 플로어에 내린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10년 감수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보·연금공단 서비스 '한심'

■ 정부 산하 80개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방송광고공사·산재의료관리원 최우수

정부 산하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항만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고객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최우수 그룹으로 평가됐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91개 산하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79.4점으로 전년의 77.1점에 비해 2.3점이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만족도가 92.7로 가장 높았고 산재의료관리원(9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91.5), 한국지역난방공사(91.4), 대한주택보증(90.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89.9), 국립공원관리공단(87.2), 한국주택금융공사(86.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족도 지수가 63.3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항만공사(64.6), 국민연금관리공단(66.3), 건강보험심사평가원(69.3) 등도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지수는 84.2로 전년의 65.4에 비해 18.8포인트 올라가 가장 많이 개선됐으며 방송광고공사(이하 상승폭 16.2포인트), 한국마사회(15.0포인트), 한국인터넷진흥원(10.9포인트) 등도 서비스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다.

고객중심 경영사례를 보면, 방송광고공사는 고객만족도 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호자 없는 중환자실 운영으로 보호자들의 간병부담을 줄였다.

대한주택보증은 불만족 고객에게 편지 보내기를 실시했으며 마사회는 농촌희망재단의 설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립공원교실'을 운영했다. /연합뉴스

"올해 정치 실용중도 노선이 지배"

■ 현대경제연구원 '정해년 신구상' 보고서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적…사이버 인생 확산

올해 정치는 실용중도 노선이 지배하고, 정치권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터넷 상 가상세계와 아바타 등을 통해 오락성과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사이버 인생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정해년 신구상'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에서 나타날 9가지 트렌드로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토지공개념 논의 활성화 ▲수출모델 다차원적으로 변환 ▲신 금융빅뱅 ▲사이버 인생 확산 ▲실용중도의 지배 ▲여풍(女風) ▲매스클루시버티 ▲한반도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꼽았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실용중도의 지배'와 관련, "많은 유권자들이 보수나 진보보다는 중도를 표명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당들도 집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실용중도 노선 수렴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실제 한나라당은 최근 반값아파트 공약 등 평등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기업 축소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이버 인생 확산'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터넷 상에서 게임을 즐길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비즈니스 등 현실세계와 같은 체험을 통해 현실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대리만족을 얻으려 경향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어 "차별성과 희소성을 갖춘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극소수의 특별한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 Mass+Exclusive)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한 시장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은 중·후진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고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김대중前대통령 83회 생일 동교동 자택서 조촐한 자축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6일 83회 생일을 맞았다.

김 전 대통령은 감기 기운때문에 이날 오전 휴식을 취하고 대신 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정당 관계자들의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자택에서 가족, 비서진과 함께 오찬 등을 하며 생일을 조촐하게 자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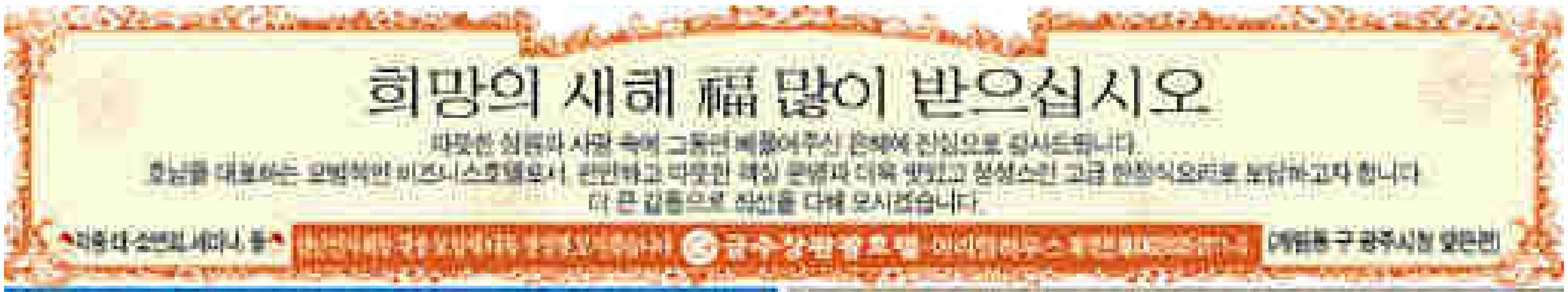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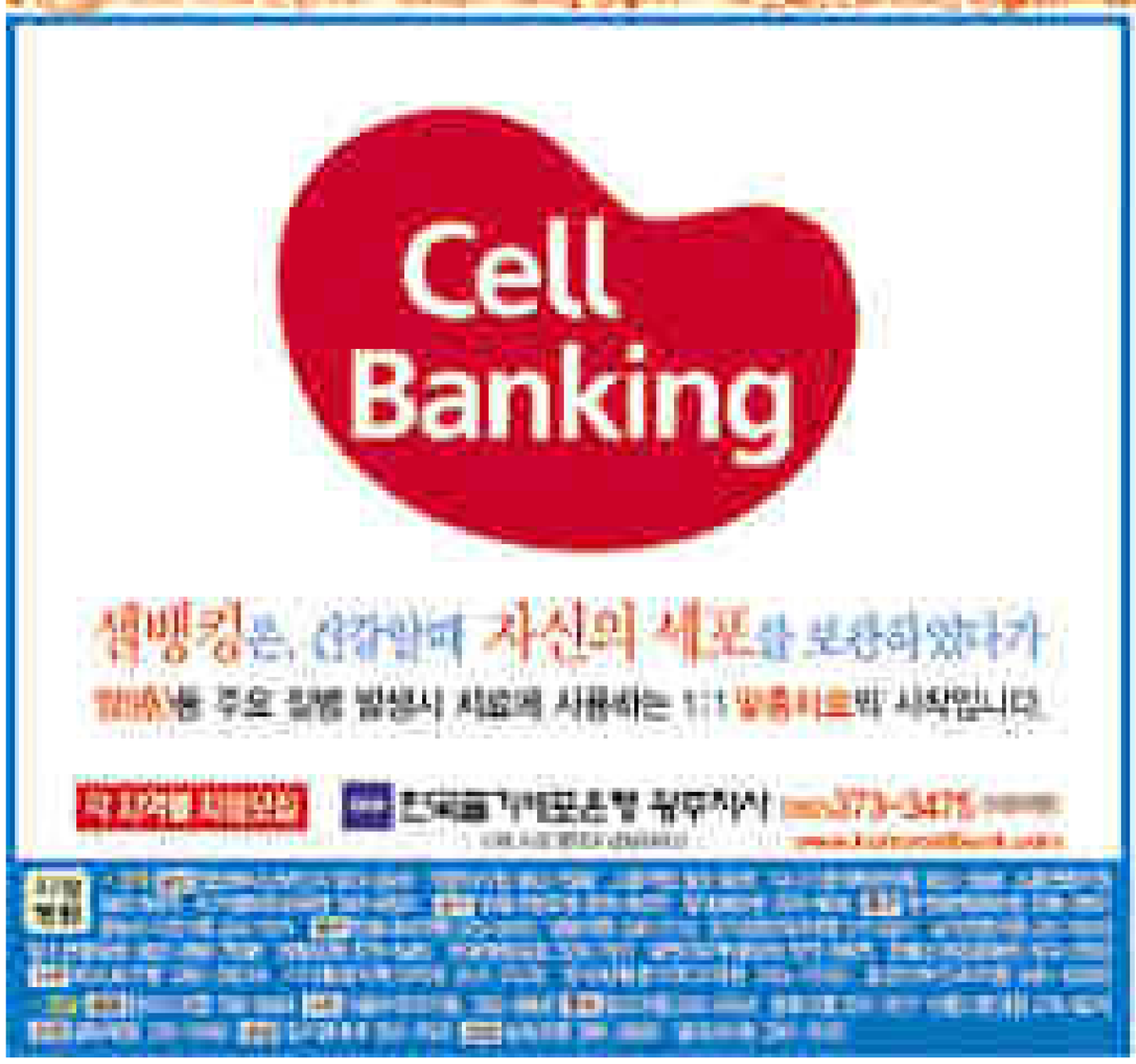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승용 홍보수석을 동교동으로 보내 생일축하 난과 함께 축하인사를 전했고 한명숙 총리도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윤 수석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건강을 꼭 챙겨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여사는 "고맙다. 노 대통령도 건강에 신경 쓰시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했고 민주당 장상 대표도 배기운 사무총장을 보내 떡과 과일 등을 선물했다.

또 동교동계 비서 출신인 최재승, 남궁진 전 의원 등도 동교동을 방문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5일 박재완 비서실장을 동교동으로 보내 축하난을 전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이 83회 생일을 맞은 지난 6일 오전 동교동 자택 현관에 방문객들의 신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